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조원호	영문	Wonho Jo
학과(전공)	신소재공학부		학번	201**254
파견 학기	2017년도 1학기		연락처	
파견 국가	독일		파견 대학	EAH Jena

❖ 경험보고서는 다음 파견 학생을 위해 A4 3페이지 이상 상세히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저의 대학생활의 목표가 '학생신분에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을 다해보자'입니다. 하고 싶은 취미에도 빠져보고 방학을 이용해 여행도 다니는 등 되든 안 되든 부딪혀볼 수 있을 때가 학생신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학년 1학기를 다닐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휴학 없이 이대로 졸업해서 회사 생활하다보면 유럽여행은 꿈도 못 꾸겠다. 유럽여행은 보통 비행기로 10시간 내외로 갈 수 있는 곳이라 한 번 갔을 때 여기저기 가볼 수 있게 15일 이상은 일정을 잡아야하는데 졸업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도 할 겸 교환학생을 통해 유럽의 대학생활도 해보고 문화도 느껴보고 싶어 지원해 4학년 1학기를 다녀왔습니다. 교환학생으로 독일 대학교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독일이 유럽의 지리학적으로 주변국가 여행하기 좋아서였습니다.. 사실 4학년은 취업준비로 바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교환학생을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생의 마지막 긴 휴가라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5개월 동안 유럽생활을 했습니다. 남들은 취업준비해서 스펙도 많이 쌓아 이미 합격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 하지 않습니다. 사막 한 가운데서 쏟아지는 별들을 보며 밤을 새기도 하고, 낙타도 타보고, 남들 다 가보는 랜드 마크도 찍어보고, 버킷리스트인 스카이다이빙도 해봤습니다. 인생은 결코 길지 않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청춘을 즐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환학생을 통해 인생 휴가를 즐기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교환학생 선발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이 1.항공권 구입입니다. 항공권이라는게 하루라도 일찍 예매하면 싸기 때문에 자신이 갈 곳이 정해졌다면 바로 구입해야합니다. 팁은 날짜를 대충 잡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로 왕복을 끊어 놓는게 좋습니다. 이 두 항공사의 출국, 입국 날짜 변경은 다른 항공사에 비해 무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도로 끊으면 직항을 싸게 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가뜰이나 교환학생같은 경우는 짐도 많아서 경유하면 상당히 힘들게 되죠.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할게 2.상대교 서류준비, 이 부분은 국제교류원 담당자분한테 여쭙어가면서 준비하시면 되고, 보통 영어로 작성하고 해당나라 언어로 되어있으면 구글번역기로 돌려가며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팁은 해당 학교를 갔다온 사람이나 현재 머물고 있는 사람과 연락이 닿으면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다음은 3. 기숙사 신청, 기숙사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의 경우 독일 예나라는 도시에서 생활했습니다. 이 곳은 워낙 학생 인구가 높은 지역이라 기숙사 수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배정받고 살았습니다. 여기서도 팁은 해당 학교를 갔다온 사람이나 현재 머물고 있는 사람과 연락이 닿으면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단, 다른 학교 사정을 들어보니 기숙사가 없어 집을 구해 살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건 케바케! 그 외에 4.비자발급, 5.보험신청, 6.계좌개설 및 체크카드발급, 7.학생증 발급 및 수강신청 은 독일가서 튜터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앞의 4가지의 준비는 현지가서 직접해야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회화가 되어 가능

합니다. '뭐하러 왔다', '뭐가 필요해서 왔다' 이런 문장은 영어나 해당나라 언어로 꼭 숙지하셔야합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독일 예나응용과학대(영어로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Jena, 독어로 Ernst-Abbe-Hochschule Jena),(이하 응용과학대) 독일에서도 종합대학교는 'universitat' 공과대학은 'Hochschule'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나라, 지역에 따라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 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상당히 작아 건물 2~3개만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전공이나 기초언어 수업은 이 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리적 위치는 기숙사에서 약 10분 이내 거리였습니다. 독일은 언어 수업이나 동아리 같은 경우는 타 학교의 것도 신청이 가능해서 예나대학교(university of jena, Friedrich-Schiller-Universität jena)에서 어학 수업 4개 동아리 4개정도 신청하였으며, 각 수업마다 수업료가 있고, 어학수업은 학점이 나오는 반면 동아리는 학점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예나대학교는 도시 전체에 여기저기 건물이 나뉘어 있어 수업마다 버스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동아리도 볼링, 펜싱, 유도, 축구, 농구 등 100개가 넘는 종류가 있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저에게 있어선 외국학생들과 이런 활동을 하는게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기후는 1학기에 가신다면 5월부터 8월까지는 상당히 쾌청하고 좋습니다. 독일이 위도가 높아서 해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해가 떠있는 등 긴 하루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2학기를 보내보진 않았지만 가을 학기에 보낸사람에게 듣기론 날씨 자체도 흐린 날이 많고 해도 늦게 뜨고 오후 4시만 되어도 해질녘이 되어 우울하더라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예나라는 도시에는 주변 공원도 많아 피크닉하기 좋아 날씨가 좋은 날이면 공원에서 원반던지기, 도시락피크닉, 그릴파티 등 여유를 즐길수 있습니다. 학생증으로 주변 도시까지 가는 기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바이마르, 에르푸르트 등 도시 여행도 가능합니다. 예나에서의 생활은 복잡한 도시생활보다는 한적하고 작은 도시 느낌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저는 교환학생으로 응용과학대에서 'Scientific instrumentation'이라는 학과로 배정을 받습니다. 제가 알기론 예나응용과학대학교에서는 영어 수업 열리는 과가 이 과뿐입니다. 물론 독일어로 수업이 가능하신 분은 다른 과 신청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는 Master과정으로 우리나라 석사과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업내용도 확실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응용과학대에서 전공 1과목 'Thin Film', 실습 1과목 'Soft Skills'을 수강하였고, 예나대학교에서 어학 4과목 'B2/C1 Grammar in use', 'A2, B1 Everyday English-All skills', 'Conversation and Discussion'으로 영어 문법수업 1개, 회화수업 3개를 들었습니다. 전공과목은 듣기는 했으나 앞서 말했다 싶이 어렵기도 하고 영어 수업에 적응을 하지 못해 성적을 받지 못하여 수료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전공 수업을 2~3개 듣고자 한다면 영어실력은 물론이고 전공영어도 잘 알고 계시거나 열심히 공부하셔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교환학생을 통해 여행을 충분히 즐기고 영어 회화를 늘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업을 짰습니다. 다음에 가실분들도 이 부분은 교환학생 가는 목적에 맞게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기숙사는 Moritz-seeback-Str.15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독일이나 다른 유럽의 기숙사는 한국의 기숙사와는 다르게 1인 1방을 원칙으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2~5명씩 하나의 플랫으로 거실, 욕실, 화장실, 부엌 등을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저는 저 포함 한국인 2명, 우크라이나인 1명, 독일인 1명 이렇게 4명이서 플랫메이트가 됐으며, 서로 친해져 요리도 같이 해먹곤 했습니다. 그러나 다들 수업도 다르고 일정도 달라 나중에는 서로 인사만 하는 사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 중에서는 플랫메이트와 친해져 다른 나라 여행도 같이 가고 그런걸 보면 플랫메이트마다, 자기 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숙사비는 보증금 300유로(한화 약 36만원), 월세 205유로/월(한화 약 27만원)으로 인터넷비 10유로/월(한화 1.3만원)로 수도세 가스세 등은 없습니다. 생활비에 포함되는 공공보험료 90유로/월(한화 12만원)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월마다 40만원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입니다. 5개월을 생활한다고 보면 200만원은

보험, 기숙사로 빠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초기에 드는 비용은 보증금 36만원정도, 학생증 발급비 20만원정도, 비자 발급비 10만원정도, 타대학 수업료 10만원정도(4과목 기준), 동아리 활동비 10만원정도(4개 활동 기준), 나머지 이불, 배게, 침대커버, 식기류 등의 생필품 구매에 지출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지출이 상당히 많다는 것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독일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삼푸 천원, 로션 2천원, 수분크림 9천원, 돼지목살 1근 3천원, 삼겹살 1근반 5천원, 과자 한봉지 1~2천원, 등 마트나 드럭스토어를 이용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단, 외식물가는 한국의 1.5배 이상이고, 웬만한 식당에서는 물을 사먹어야하고 팁까지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통편 비용도 비싼 편입니다. 물론 1~2달 일찍 예매하면 싸게 구할 수 있는데 대체로 한국에 비해 비싼 편인거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 주(예나는 '튀링겐주' 의 소속 시)의 기차, 트램, 버스(시내버스만)는 무료이기 때문에 이 점 교통편에 잘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저의 경우의 교환학생기간(5개월) 동안 비용은 900~1000만원(왕복항공권, 기간내 여행 포함)이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여행에서만 400~500만원정도 썼으니 나머지가 독일에서의 생활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예나 응용과학대학교 국제팀 프로그램은 담당자(저희는 로베르트씨라고 부름)가 메일을 통해 수시로 알려줍니다. 내용은 '독일어 수업 있으니 신청하세요', '요리프로그램 있으니 신청하세요', '몇일 부터 몇일까지 교환학생 대상으로 어디어디 갈 예정이니 신청하세요' 등등이 있습니다. 참석은 자유입니다. 본교 국제교류도우미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은 없어 해당학교 학생이 따로 연락해주거나 만나는 일은 없습니다. 찾아가서 친구를 사귀든지 해야합니다. 요리프로그램에 참여했었는데, 5~6개국 팀이 모여 서로 각 나라의 요리를 하고 다 같이 만찬을 즐기는 활동도 있었습니다. 응용과학대의 교환학생의 대부분은 인도인, 파키스탄 등의 아시아계열이 많습니다. 반면에, 예나대학교는 중국인, 일본인, 우크라이나인, 폴란드인, 모로코인 등 다양한 국적의 교환학생들이 많습니다. 예나대학교의 수업, 동아리를 통해 친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응용과학대의 한인 교환학생은 금오공대뿐인데 반해 예나대학교 한인 교환학생에는 전남대, 동덕여대, 중앙대 등 여러 학교의 한인들이 있으니 친해져서 예나대학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코리아 슈탐티쉬'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활동은 한국에 대해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모여 맥주 한잔 하며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활동입니다. 한국어를 배우중인 외국학생들도 많아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이 활동 또한 예나대학교 한인 학생 중에서 연락을 돌려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관련 학생이랑 연락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몇번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만약 예나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예나 응용과학대학교 학생식당은 'Mensa'라는 곳에서 아침, 점심을 2~3천원에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건물에 'Cafeteria'에서도 간단한 디저트, 햄버거, 디쉬 등을 2~3천원에 먹을 수 있습니다. 단, 학생증이나 국제학생증을 제시하셔야 학생가격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총 세군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응용과학대 건물에 1곳이 있고, 예나대학교 건물에 1곳이 있고, 튀링겐주 도서관이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중 튀링겐주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일단 시설도 깨끗하고 공간이 상당히 넓어 쾌적합니다. 도서관마다 주변에 Cafeteria가 위치해 있어 배고플 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는 응용과학대학교 동아리, 예나대학교 동아리 이렇게 있습니다. 개수와 종류는 예나대학교 동아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축구, 농구, 유도, 아크로바틱, 볼링을 해봤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1회 2~3시간 정도 활동합니다. 외국학생들과 축구, 농구 등 익숙한 스포츠를 하며 친해지는 것도 좋지만 펜싱, 아크로바틱, 클라이밍, 댄스, 요가, 수영 등은 한국에서 접하기 어려워 한번 배워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유럽인들과 동양인들간에 문화적 차이는 무조건 존재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럽인들은 개인주의적

인 성향이 강해서 자주 어울리고 붙어다니는 가까운 사이가 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도움을 요청한다면
가 마주칠 일이 있을 때 친절하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가끔 조롱하는 말투로 시비를 거는 경우도
있긴한데 가볍게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반면 동양인들은 확실히 문화적, 거리적으로 가까워 쉽게 친해
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 교환학생 중에서는 중국인학생과 교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팁은 글에 조금씩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참고하실
분은 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영어든 독일어 회화를 가장 많이 늘리는 방법은 이성과의 교제입니다. 중국
인과 사귀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중국어를 전혀 모르고 중국인친구도 한국어를 전혀 몰라 대
화를 하려면 영어나 독일어를 써야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만나며 알아가면서 대화를 하기위해 필사
적으로 영어나 독일어를 쓰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투는 상황에서도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가며 싸우는
상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부가 안될 수가 없죠. 물론, 사귀는 사이만큼 가까운 동성친구를 만날 수
도 있겠습니다...만 5~6개월의 기간동안 그렇게 친해지긴 어렵다고 볼 수 있죠.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독일 예나라는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독일이라는 나라의 체계와 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하는 사
람은 대접받고 일보다는 각자의 삶, 가정을 중요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수업중에서도 날씨가 좋
은 날이면 야외 수업을 한다면가 공원에서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양 문화 중에 남들이 뭐하는지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자신도 남들 눈치를 보지 않아 개성을 자유롭게 표출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나라와는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청, 은행, 병원 등에서 필요
한 업무를 볼때는 매우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웬만한 모든 업무는 테어민이라는 예약을 해야
하고 시간에 맞춰서 가야합니다. 조금이라도 늦을 시 다시 잡아서 가야하므로 조심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몰리는 기간에는 그만큼 예약자리가 없어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도 합니다. 어이가 없는 건 다친
사람도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리가 금이 가도 예약을 잡아서 진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니면 응급
실을 이용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지원금이 다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원금 없이 학생 혼자 부담하기에는 제한되는 기회라고 생각합
니다. 단, 저의 경우에는 2학년 1학기부터 매학기 150만원씩 4학년 1학기까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명목
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 갔다 왔습니다. 최소한 왕복 항공편과 기숙사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향 후 파견학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